

빌레몬과 오네시모

Philemon & Onesimus

빌레몬서 1:8-20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3년 9월 1일 설교

⁸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⁹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의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¹⁰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¹¹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¹²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심복이라. ¹³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¹⁴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¹⁵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¹⁶이 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네게랴? ¹⁷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¹⁸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계하라. ¹⁹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갇히려니와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²⁰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다양한 제도

세상에 제도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모여 살면 규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대일로 만날 때 지켜야 될 예절도 있고 이렇게 교회라는 단위에서 필요한 규칙도 있고 또 국가처럼 큰 단위에 미치는 제도도 있습니다. 정치를 두고 말한다면 북한처럼 왕이나 권력집단이 마음대로 하는 전제주의가 있고, 이 미국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 하는 민주주의가 있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처럼 왕이 있지만 헌법에 따라 다스리는 입헌군주제도 있습니다. 어느 제도가 더 좋은 제도이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전 세계 여러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느끼는지 조사한 게 있는데 일등한 나라가 부탄입니다. 인도하고 중국 사이에 낀 조그만 불교국가인데 국왕이 전권을 행사하는 전제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국왕이 국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통치를 잘 하니 국민소득은 별로 안 높아도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니까 사람마다 입에 웃음이 가득합니다. 왕도 국민을 더 행복하게 해 주려고 그 뒤로 헌법도 만들고 의회도 만들어 지금은 입헌군주국이 되었습니다.

정치가 안정이 되고 또 경제도 잘 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느끼는 나라는 대부분 입헌군주국입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도 그렇고 베네룩스 삼국,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도 그렇지요. 아랍 국가들은 대부분 전제군주국입니다. 왕이 전권을 휘두릅니다. 그렇다고 아랍이 다 북한 같으나 하면 그건 또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대표를 뽑아 정치를 하게 하는데 모든 국민이 투표로 참여하니 상당히 대접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 다수를 따른다는 건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제도와 사람

결국은 사람이겠지요? 전제주의 국가라도 통치자나 권력집단이 나라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지혜롭게 잘 한다면 좋은 나라가 됩니다. 민주주의 한다고 선거하고 투표하고 법석을 떨면서 돈과 인력을 낭비하는 나라도 많습니다. 아시아에도 있고 아프리카 아메리카 하야간 아 자로 시작하는 대륙에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 하는데 국민이 직접 뽑으니 옳은 말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교육입니다. 국민이 수준이 높아져야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고 그래야 나라가 제대로 굴러갑니다.

그런데 사람만 좋으면 제도는 아무래도 상관 없으나 하면 그것도 또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사람이 안 따르면 안 되는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제도가 잘못되어 있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도는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외부에서 가하는 압력입니다. 압력이 바른 방향으로 작용해야지 거꾸로 가면 큰일 납니다. 사람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합니다. 제도와 사람이 잘 맞아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잘 맞던 제도가 다른 사람에게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맞는 제도, 아니면 어떤 시스템에 갖다 놓아도 어울릴 완벽한 인격, 그런 건 없습니다.

스캔들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 안 좋아하시지요. 하지만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국보 반가사유상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미소만 짓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난 주간 그리니치 고등학교 학생 하나가 십 년 왕따를 견디다 못해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모르고 살면 참 좋겠지요. 하지만 왕따가 있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데, 그래서 누구는 목숨까지 끊은 상황인데, 나는 좋은 소식만 듣고 미담만 들으며 살겠다 하는 건 무책임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처럼 두 눈 똑바로 뜨고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참상을 바라보아야 희망이 생깁니다.

지난 주간 뉴욕의 큰 교회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터졌다 하면 목사지요. 여자 문제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면서 정말 이해가 안 된 건 목사가 선교다 뭐다 하면서 교회 돈을 많이 썼는데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지출 기록도 없답니다. 목사들이 왜 큰 교회로 가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지요? 유명한 목사가 개척해 큰 교회가 되었는데 목사를 중심으로 커지다 보니 모든 권한이 목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개척하신 그 분이야 잘 하셨겠지요. 그런데 새로 온 목사는 안 그렇거든요? 돈을 마구 쓰는데 처음에는 교인들도 전에도 그랬으니까 했는데 좀 이상하다 싶어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몇 달 전에 터졌는데 드디어 지난 주간 신문에도 났습니다.

로마의 노예제도

오늘 오네시모와 빌레몬에 대해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네시모는 노예고 빌레몬은 로마 시민이면서 오네시모를 소유한 주인입니다. 노예와 주인 사이지요. 두 사람을 통해 오늘 제도와 인격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대 로마의 사회제도부터 좀 알아야 됩니다. 고대 로마는 계급사회였습니다. 최고 신분은 시민입니다. 남자만 가능합니다. 선거권, 피선거권, 사업운영권 등 모든 권리를 누렸습니다. 여자 시민의 경우 정치는 못 하고 경제 활동만 할 수 있었는데 결혼하고 이혼하는 권리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외국인입니다. 거대 제국 로마에 정복당한 나라가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냥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사기도 하고 특별한 경우 황제로부터 시민권을 선물로 받기도 했습니다.

맨 아래가 노예입니다. 노예는 한 마디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소유물입니다. 주인은 노예를 고문해도 되고 말을 안 들으면 죽일 처분해 사형까지 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친구 폴리오라는 사람은 집안 연못에 식인물고기를 기르면서 말을 안 듣는 노예는 산 채로 연못에 던졌습니다. 정말 못된 인간이지요. 한 번은 황제를 초대한 연회에서 노예 하나가 크리스털 잔을 실수로 깨뜨리자 연못에 던지려고 하는 걸 황제가 말려 못 했다 하는 이야기가 고대 이후 윤리 교과에서 실려 전해올 정도입니다.

주로 전쟁포로가 노예가 많이 되었습니다. 노예를 사고파는 시장도 있었는데 건강하고 젊은 남자노예가 가장 비쌌다고 합니다. 노예시장에서는 노예를 벌거벗겨 진열해 놓고 목에다가 나이, 출신, 혈통, 건강상태, 교육 정도 등을 쓴 팻말을 걸었습니다. 구입해 써 보다가 문제가 발견되면 육 개월 안에는 반품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예가 해방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방만 되면 똑같은 사람인데 제도에 매인 한은 그냥 물건이었습니다.

오네시모

오네시모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다가 도망을 갔습니다. 노예가 도망을 가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요즘의 탈옥수 비슷하게 취급했습니다. 곳곳에 방을 붙이고 탈주노예 체포 전문 팀을 고용해 잡아오게 했습니다. 일단 잡아오면 요즘 탈옥수하고 비교도 안 되는 벌을 받았습시다. 채찍질은 기본이고 달군 쇠로 지지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달군 쇠로 이마에 탈주 노예라는 낙인을 찍기도 하고 개처럼 목에 쇠줄을 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도망만 간 게 아니라 주인의 돈까지 훔쳐 달아났습니다. 잡히면 목숨을 건지기 어렵습니다. 재산이라 죽이지 않는다 해도 평생 가혹한 벌을 받으며 살게 되겠지요.

그러던 오네시모가 로마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탈주 노예가 제국의 수도까지 갔으니 간도 크지요. 왜 갔을까요? 바울의 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의 주인 빌레몬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도 바울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망간 직후에는 멀리 사라지고 싶었겠지만 이내 마음을 고쳐먹은 것 같은데 그냥 돌아가자니 겁이 납니다. 맞아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바울을 찾아 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 집에 있을 동안에는 예수를 안 믿었을까, 그건 좀 의문이 됩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지만 예수 믿는 주인들은 노예도 예배에 참석을 시켰습니다. 적어도 사람으로 대우는 했다는 말이겠지요. 오네시모가 그런 예배에 참석했는지 그건 잘 모르

지만 바울이 본문에서 오네시모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한 걸로 봐서 아마 반항적인 노예이거나 해서 주인이 가진 신앙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돌러보냄

그러던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참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긴 하지만 로마 시민입니다. 오네시모는 탈주 노예 신분이지만 예수를 믿는 바람에 두 사람이 주 안에서 형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도 없고, 남자 여자도 없고, 주인과 노예도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도망을 나왔습니다. 빌레몬의 소유물입니다. 게다가 물건까지 훔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었으니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용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결할 일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몸은 돌아가면 되는데 훔친 돈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바울 자기가 책임지겠다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낸 다음 잘못된 것부터 바로잡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하고 가만있는 건 참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니 용서도 못 받은 거지요. 형제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걸 먼저 해결해야 하나님이 제물도 받으신다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삭개오도 주님을 믿는 순간 지난날 토색한 걸 네 배로 갚겠다 약속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무시하고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법을 어겨서라도 자유를 얻고 싶었습니다. 돈도 얼마든지 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 그게 죄라는 걸 분명히 깨닫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잘못된 줄이야 알았겠지요. 하지만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돌아갑니다. 바울이 먼저 가라 했는지 오네시모가 먼저 가겠다 했는지 그건 모르지만 돌아가는 게 옳다는 건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 안의 섭리

목숨을 건 일이라 했지요? 그런데 정말로 목숨을 걸고 가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이 있으니까요. 주 예수의 사랑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의 사랑이 탈주 노예 오네시모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주 예수의 사랑이 오네시모와 바울 두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결정을 내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 오네시모 편에 부치면서 오네시모도 그렇게 주 예수의 사랑으로 대해 달라 부탁드립니다.

빌레몬을 전도한 사람으로서, 빌레몬의 영적 스승으로서 바울은 얼마든지 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령 대신 부탁을 합니다. 사랑으로 부탁한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명령보다 사랑이 훨씬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가짜 교인이라면 명령이 더 세겠지요. 하지만 주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사랑만큼 강한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으로 부탁드립니다. 부탁한다는 말은 변호한다, 대신 말해준다 하는 말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바로 그 일을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합니다.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잠시 떠난 건 물론 도망간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도망이라 하지 않고 영원히 두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합니다. 도망간 그게 계기가 되어 참 신앙인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주인과 노예 사이가 아니라 주 안의 형제로 영원히 같이 있는 사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도망간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일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자 하는 말이지요?

어디서 많이 들던 소립니다. 구약에서 누가 그랬지요? 요셉이지요. “형님들이 저를 파셨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이 저를 보내 가족을 구원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는데 제가 어떻게 형님들에게 죄를 묻겠습니까?” 잠시 떠난 그 계기로 영원한 형제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용서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나와 네게 유익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자기 감옥수발을 맡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탈주했다가 마음을 고쳐먹은 이 과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역사해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빌레몬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다면 다른 형제가 볼 때도 하나님의 섭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내가 이

렇다 저렇다 하기 전에 빌레몬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군요. 할렐루야!” 해 주어야 바울이 동역자로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이 오네시모를 눌러 있게 하고 빌레몬에게 통고만 한다면 빌레몬으로서는 좋다 싫다 말할 기회조차 없어진다. 내가 데리고 있던 노예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인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바울 혼자 해치워 버리면 빌레몬으로서는 안 된다 할 기회조차 없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처럼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돌려받은 다음 바울의 뜻을 십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훌륭한 일꾼이 될 것을 확신하고 다시 바울에게 보내 준다면 바울도 좋지만 빌레몬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거듭 칭찬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일꾼인지 “내 심복”이라 부릅니다. 가장 신뢰하는 부하가 심복 아닙니까? 마음 심 자에 배 복자인데 그리스어 원어도 같습니다. 내 내장, 내 마음 그런 뜻입니다. 가장 신뢰하고 나를 맡길 만한 그런 일꾼이라는 말입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라는 말도 합니다 (골 4:9). 그리고 이름으로 말장난도 합니다.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하므로 네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오네시모라는 말이 “유익하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름값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냥 데리고 쓰면 나한테만 유익하겠지만 빌레몬에게 갔다가 다시 온다면 나와 빌레몬 모두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돌려보냅니다.

이제는 형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다시 보내 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그보다 더 중요한 부탁을 하나 또 합니다. “형제로 대하라.” 이거 무시무시한 부탁입니다. “이 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 받는 형제로 둘 자라.”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하라는 말인데 이게 왜 무시무시한 부탁입니까? 이제 빌레몬 집에 난리가 나게 생겼습니다.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는 난리입니다. 어쩌면 빌레몬 집에서는 오래 전에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고 예배에도 참석을 시켰을 거니까요.

그런데 오네시모에게는 더 해 주라 요구합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를 사람으로 취급하긴 했지만 노예는 여전히 노예였습니다. 이 미국에 있던 노예제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 안의 형제지만 부려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한테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바울 자기에게 특별한 사람인데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빌레몬한테도 그렇게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동무로 알진데” 그랬는데 여기서 동무는 코이논입니다. 코이노니아 곧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빌레몬 자네와 내가 주 안에서 교제하는 형제사이듯 오네시모도 그렇게 형제사이로, 주 안에서 교제하는 사람으로 맞이하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 노예로 대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 심복입니다. 내 아들입니다. 노예로 대하지 말고 사랑 받는 형제로 두라 했지요. 그리고는 빌레몬을 뭐라 부릅니까? “오, 형제여!” 형제여, 이 한 마디에 결론이 났습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형제여” 하고 부르면서 “오네시모도 형제로 대해 주게” 했습니다. 이 말이 왜 무시무시한지 아시겠지요? 오네시모는 노예입니다. 노예가 예수 믿었다고 형제로 대하고 복음을 위해 유익하다고 특별히 대우해 준다면 이제 다른 노예도 못 부릅니다. 노예제도는 계속 있겠지만 우리 집에서는 이제 없습니다. 형제로 대하라 하는데 어떻게 사교팔고 하겠습니까? “이놈은 게을러 빠졌으니 다른 놈으로 바꿔주세요” 할 수 있겠습니까? 형제로 대하라는 이 한 마디는 링컨이 선포한 노예해방선언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노예해방선언입니다.

제도보다 인격

성경은 노예제도를 반대합니다. 사람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평등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노예제도는 인간을 물건 취급하는 잔인한 제도다. 비성경적이니 폐지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노예를 소유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노예를 해방시키라거나 노예제 반대운동을 펼치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 예수를 믿게 된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하라 주문합니다.

성경은 제도보다 인격입니다. 노예제라는 사회제도보다 너와 내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관계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렇기에 노예를 해방하라 하는 대신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우할 것을 요구하고 노예 주인인 우리 위에도 상전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라고 경고하였습니다. 노예들에게도 분명히 떨치고 일어나라 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든 주인을 섬기라 하였습니다. 믿는 주인, 믿는 노예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회제도가 어떠하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 제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우선하고 그걸 인간관계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도보다 인격을 앞세우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은 보수 성향을 많이들 갖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뒤집어엎는다고 크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에 보면 격변이 참 많았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한다며 일어난 게 공산주의 혁명인데 결과가 뭘니까? 노동자 농민의 낙원이지요? 에덴동산하고 비슷해서 먹을 거라고는 과일 몇 개에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낙원입니다. 그런 낙원 만들자고 사람만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혁명을 반대합니다. 제도를 뒤집어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사람만 죽기 때문입니다.

제도도 중요

그럼 인격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전도만 하고 제도는 어찌 되든 나 몰라라 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지요. 인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도도 잘 챙겨야 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회가 깨끗하고 투명해야 법을 지키는 사람이 혜택을 봅니다. 혼탁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면 나쁜 짓하는 사람이 돈도 권력도 잡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살려고 애쓰던 사람도 나쁜 짓을 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사랑에 푹 젖어 산다 해도 제도는 중요합니다. 사람은 다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살지만 언제 시험에 빠질지 모릅니다. 목사가 돈도 마음대로 쓰고 중요한 결정도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다면 그런 교회에 스캔들이 터지는 게 성경적입니다. 조그만 교회도 돈 관리는 두 사람 이상이 하게 합니다.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서로 지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 감사제도도 두어서 돈을 제대로 썼는지 관리를 철저하게 잘 했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잘 갈 수 있습니다.

공산주의가 다 망하고 자본주의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우수해 그런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이 부패했다는 걸 아는 제도라서 인기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인간이 착하다고 착각을 해 망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간의 탐욕을 얼마든지 보강해 주기 때문에 빈익빈부익부의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고 권력과 부를 독과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법이 그런 탐욕을 잘 통제해 주는지 살펴야 됩니다. 누진세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소외된 사람을 위한 복지정책을 알차게 추진해야 됩니다. 사람은 다 썩었습니다. 감시하지 않으면 탐욕에 다 넘어갈 것입니다. 나쁜 법은 반대하고 좋은 법을 제시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 다 해먹지 않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감시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도 살지만 우리도 우리 영혼을 잘 간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압력

한 때 지구상에 있던 노예제도가 지금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성경이 이웃 사랑을 강조하니까 노예제도가 저절로 없어졌다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인격이 중요하지만 외부의 압력도 필요합니다. 제도도 중요하고 그걸 바꾸려는 노력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신앙 인격만 잘 갈고 닦으면 되겠지만 사람도 고려해야 됩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배려한 것 이상으로 우리도 사람을 배려해야 되고 그래서 제도에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제도가 중요하다는 말이 본문에 어디 나오니까? 그런 말은 없지요. 힌트는 있습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사랑으로 하라 하면서도 간접적으로 압력을 함께 넣고 있습니다. 말은 “자네가 알아서 하게” 하지만 그러기 전에 “내가 자네한테 명령할 수도 있는 일일세” 했습니다. 오네시모를 심복으로 쓰겠다 할 때도 “사실 자네가 할 일을 대신 하는 것일세” 그랬습니다. 본문 마지막에 가서도 “너는 이 외에 네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자네가 나한테 빚진 게 사실 많이 있지만 내가 언급하지는 않겠네 하는 말입니다.

사랑으로 당연히 하겠지만 바울도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인 줄 알기에 그런 거룩한 부담을 빌레몬에게 지우고 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빌레몬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도도 인격도 완벽한 건 없습니다. 인격은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푹 젖어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제도는 정치든 경제든 교회 행정이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막아주고 끝없는 탐욕을 통제하고 믿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는 쪽으로 고치고 바꾸고 조정하는 것이 우리 책임인 줄 믿습니다. (권수경 목사)